제12강 최영미의 「마지막 섹스의 추억」

(1교시)

마지막 섹스의 추억

아침상 오른 굴비 한 마리
발르다 나는 보았네
마침내 드러난 육신의 비밀
파헤쳐진 오장육부, 산산이 부서진 살점들
진실이란 이런 것인가
한 꺼풀 벗기면 뼈와 살로만 수습돼
그날 밤 음부처럼 무섭도록 단순해지는 사연
죽은 살 찢으며 나는 알았네
상처도 산 자만이 걸치는 옷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는 약속

그런 사랑 여러 번 했네
찬란한 비늘, 겹겹이 구름 걷히자
우수수 쏟아지던 아침햇살
그 투명함에 놀라 껍질째 오그라들던 너와 나
누가 먼저 없이, 주섬주섬 온 몸에
차가운 비늘을 꽂았지

살아서 팔딱이던 말
살아서 고프던 몸짓
모두 잃고 나는 씹었네
입안 가득 고여 오는
마지막 섹스의 추억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 최영미에 대하여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1992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속초에서」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 이어 간행한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가 공전의 베스트셀러 시집이 됨. 이후 『시대의 우울』, 『꿈의 페달을 밟고』 등의 시집 혹은 산문집을 냈으나, 첫 시집만큼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2. 최영미와 386세대

최영미는 그 자신이 386세대이면서, 386세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던 90년대 초반에, 이 세대가 지닌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절대궁핍에서 벗어난, 민주와 자유의 외침을 한껏 부리고 드디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이 세대는, 새로운 사상과 희망으로 무장했으나, 현실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3. 거친 그러나 새로운 시적 화법

시가 지닌 전형적인 방법을 애써 거부하고, 새로운 일상적인 그리고 여성성의 어떤 터부를 과감하게 부숴버린 최영미의 시적 화법이 화제가 되었다. 시는 고도로 훈련된 시적 언어만이 아닌, 소재를 적절히 드러내는 자신만의 어법으로 개성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소재주의를 넘어서

최영미가 다룬 과감한 여성성만으로도 첫 시집은 주목받을 만했다. 새로운 소재였으며, 그 표현은 소재의 특이함을 잘 감싸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집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데에는, 소재가 주는 충격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으며, 반복해서 충격을 줄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